

국내 문학관 웹사이트의 정보 제공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Information Services of Korean Literature Houses

최 성 연 (Seongyeon Choi)*, 성 희 혜 (Heehye Seong)**
한 지 윤 (Jiyoon Han)***, 이 혜 은 (Hye-Eun Lee)****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문학관 웹사이트의 정보 제공 현황을 파악하여 문학관 온라인 정보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은 한국문학관협회 88개 회원관 중 웹사이트가 구축되지 않은 9개관을 제외한 79개관으로 하였다. 문학관의 운영과 문화기관의 온라인 서비스 현황 및 개선 방안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웹사이트 유형, 문학 정보, 문인 정보 등 3개의 조사 항목과 13개의 세부 조사 항목을 도출하였다. 조사의 결과 국내 문학관의 웹사이트 구축률은 약 90%로 매우 높았으나, 문학 정보의 분류 기준 및 목록정보의 기술이 통일되지 않았고, 문학 자료의 제공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웹사이트 구축 지원, 문학관에 적용 가능한 목록 가이드라인 개발, 원문 제공 활성화, 문학·문인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present improvement plans by examining how Korean literature house websites provide information services. Seventy-nine Korean literature houses out of eighty-eight members of the Korean Literature House Association were studied, except nine that did not construct websites. Three core elements, including website style, literary works information and writer information, together with thirteen sub-elements, were derived from precedent studie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90% of the literature houses were operating websites, but the classification criteria for the literary works and cataloguing rules were not unified, and literature information was not provided sufficiently. Thus, 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 plans such as support to build a website, developing cataloging guidelines for literature houses, providing more full-text literature and providing information about literary works and writer.

키워드: 문학관, 문학관 웹사이트, 온라인 정보서비스, 한국문학관협회, 문학 정보

Literature House, Literature House Websites, Online Information Service, Korean Literature House Association, Literary Works Information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sy_choi@sookmyung.ac.kr) (제1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heehye.seong@sookmyung.ac.kr) (공동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hanjy@sookmyung.ac.kr) (공동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helee@sookmyung.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1년 8월 16일 논문심사일자 : 2021년 8월 17일 게재확정일자 : 2021년 8월 29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2(3): 265-284, 2021.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1.32.3.265>

※ Copyright © 2021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학관은 ‘문학 및 문학인 관련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홍보·교육하는 시설’이다(법률 제18151호). 문학관은 2016년 문학진흥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박물관·미술관법에 의해 관리되었으나, 문학진흥법 제정으로 문학관 등록제도, 문학관 협력망 등 문학관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2017년에는 제1차 문학진흥기본계획이 발표되는 등 문학관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발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국립한국문학관이 개관할 예정이다. 그러나 2018년 문학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문학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12.7%이며 향후 문학관 방문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한 이용자도 1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한국문학번역원, 2018) 문학관 이용 활성화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작가의 창작 및 생애 과정에서 생산, 축적, 유지된 기록으로, 작가와 작품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문학 자료와 같은 문화유산의 온라인 서비스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가능성을 지원하여 문학 자료의 정보로서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이은영, 2019; 박옥남, 2019). 근대문학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 잡지, 기사색인 등을 일부 제공하고 있으나 전국 각지의 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학

자료의 정보 제공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와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학관과 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학 자료의 온라인 접근성을 확보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학관 웹사이트 정보 제공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 문학관의 웹사이트 정보 제공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문학관협회¹⁾ 88개 회원관을 대상으로 웹사이트 구축 현황 및 정보 제공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1.2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문학관 운영에 관한 연구와 문화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서비스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문학관에 관한 연구에서 정정훈(2010)은 지역문학관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문학 연구 인력 문제를 지적하며 문학성과 지역성을 갖춘 문학 연구 인력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정아(2014)는 문학관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학관 프로그램 유형화를 통해 문학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에 관한 연구로 오창은(2016)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한국문학관이 라키비움(Larchiveum) 개념에 아카데미 기능을 추가한 한국형 라키비움

1) <http://www.munhakwan.com>

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김민영(2019)은 성공적인 문학관 운영을 위해서는 단·중·장기 아카이브 계획을 수립하고 전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문학진흥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문학진흥법 제정 및 개정과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채근병(2019)은 문학관 협력망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권역별 문학관 협력망 지원센터 설립을 주장하였다. 이후 개정된 문학진흥법에는 문학관 협력망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기도 하였다(법률 제18151호). 문학관 간의 협력에서 더 나아가 다른 문화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의 일환으로 라키비움을 문학관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이명호, 오삼균, 도슬기(2015)는 문학관 기능 분석을 통해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라키비움 개념에 문학관도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문학관에 라키비움을 적용하기 위한 선결과제를 제시하였다.

문학관의 소장자료에 관한 연구로 정서지(2017)는 문학기록을 작가기록, 작품기록, 파생 및 연구기록으로 유형화하고 해외 문학관 웹사이트를 분석하여 문학기록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은영(2019)은 문학기록의 분류체계는 기록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하며, 기술요소에 작가 생애, 관련 단체 및 인물과 같은 맥락정보를 추가하여 문학기록을 집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초위(2012)는 특정 작가의 사이버 문학관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구성요소로 작가 정보, 작품 정보, 지역 정보, 이용자 지원 정보를 제시하였다.

한편, 문화기관의 온라인 서비스에 관한 연

구로 노동조, 이기리(2019)는 27개의 국내 박물관 웹사이트의 상·하위 메뉴를 조사하여 콘텐츠 현황을 파악하고 조직화, 레이블링, 소장품 검색 시스템을 분석하여 박물관 웹사이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노동조, 이승욱(2020)은 30개의 국내 미술관 웹사이트 구조 및 메뉴를 분석하여 웹사이트 구축 및 개선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제안하였다. 김현지, 이해영(2009)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록정보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웹사이트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정보 제공, 정보 검색, 이용자 지원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대학기록관 웹페이지 평가모형을 제시한 뒤, 이를 활용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였다. 박옥남(2019)은 국내·외 문화유산 지식정보시스템 8개를 선정하여 이들의 콘텐츠 및 서비스를 분석함으로써 온라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콘텐츠, 검색서비스, 부가 및 확산서비스 기능의 보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노영희, 강정아, 정대근(2016)은 근대문학 자료가 구축된 국내외 11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주제 가이드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원문 미제공 등의 단점과 시사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 주제 가이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문학관 관련 연구는 문학관의 설립과 협력망, 전문인력 등 문학관 운영 요소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관의 온라인 서비스에 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문학관의 온라인 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문학관 웹사이트의 정보 제공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문학관 온라인 정보서비스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3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학관협회 회원 문학관을 대상으로 웹사이트 정보 제공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한국문학관협회는 국내 문학관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전시관, 세미나실과 같은 기본 시설, 최소 1년 이상의 운영 기간 등 일정 조건을 갖춘 후 심의를 통과해야 회원 문학관으로 가입이 가능하다.²⁾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학관협회 회원관이 문학관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2021년 4월 기준 회원 문학관은 총 88개로 공립문학관 56개관, 사립문학관 32개관이다. 그중 웹사이트가 구축되지 않은 9개관을 제외한 총 79개의 문학관 웹사이트를 조사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문학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문학기록은 작품뿐만 아니라 창작 배경, 작가 정보 등 맥락정보가 함께 전달될 때 온전히 이해될 수 있

다(이은영, 2019).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문학관 웹사이트 조사 항목 3가지를 도출하였다. 웹사이트 유형은 문학기록 온라인 서비스 현황을 조사한 정서지(2017)의 연구를 참고하여 문학관 웹사이트 구축 여부와 유형을 세부 조사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문학정보의 세부 조사 항목으로는 정서지(2017)와 초위(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자료 수집, 원문 제공 등 필수적인 문학관 기능과 맥락정보 제공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은영(2019)의 연구를 참고하여 적절한 접근점과 맥락정보를 제공하는 분류 기준 및 목록 기술요소를 문학 정보 영역의 세부 조사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문인 정보도 정서지(2017)와 초위(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작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세부 조사 항목들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총 3개의 조사 항목과 13개의 세부 조사 항목을 최종 선정하였다. 조사 항목은 <표 1>과 같다.

<표 1> 문학관 웹사이트 정보 제공 조사 항목

구분	세부 조사 항목	참고
웹사이트 유형	웹사이트 구축 현황	정서지(2017)
	웹사이트 유형(단독형, 부속형, SNS형)	
문학 정보	분류 기준	이은영(2019)
	목록(기술요소)	
	자료 수집	
	원문 제공	
	문학 관련 연구 정보	
문인 정보	문학 정보원	정서지(2017) 초위(2012)
	작가 정보	
	작가 연보	
	작품 연보	
	문인 관련 연구 정보	
	문인 정보원	

2) <http://www.munhakwan.com>

2. 문학관 현황

2.1 기본 현황

문학진흥법 제16조에 따르면 문학관은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문학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립문학관은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문학관이고, 공립문학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립한 문학관이다. 사립문학관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문학관이다. 2021년 4월 기준 총 88개의 문학관이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그중 공립문학관은 56개, 사립문학관은 32개이다. 공립문학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의 주체인 문학관은 구상문학관, 마산문학관, 정지용문학관 등이며, 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학관은 대전문학관, 운동주문학관, 한국근대문학관 등이다. 사립문학관 중 사단법인이 운영의 주체인 문학관은 우포시조문학관, 이주홍문학관, 문학의 집 서울 등이며, 대학이 운영하는 문학관은 산사(山史)현대시100년관, 세

계여성문학관 등이 있다.

문학관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경남에 13개관, 강원에 10개관, 경기와 전남에 9개관, 서울, 충남, 전북에 각각 8개관이 있어 전국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2 문학자료 소장현황

문학관 웹사이트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20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을 통해 한국문학관협회 회원관의 소장자료 현황 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37개의 기관만이 소장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문학관별 자료 소장현황은 <표 3>과 같다.

지훈문학관, 최명희문학관 등은 비교적 자세히 소장현황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김동리와 박목월의 유품(동리·목월문학관)', '유품 55점(오영수문학관)'처럼 간략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거나 '도서, 패널, 문서, 동상 등 4건 692점(만해문학박물관)', '원고류, 서적류 등 3,325건 3,346점(한무숙문학관)' 등 도서와 비도서의 구분 없이 기술하고 있는 곳이 많았으며,

<표 2> 한국문학관협회 회원관 지역별 분포 현황

구분	국립	사립	계	구분	국립	사립	계
서울	1	7	8	충북	5	2	7
부산	1	2	3	충남	1	7	8
대구	1	0	1	전북	8	0	8
인천	1	0	1	전남	9	0	9
대전	1	1	2	경북	5	2	7
울산	1	0	1	경남	9	4	13
경기	4	5	9	제주	1	0	1
강원	8	2	10	합계	56	32	88

〈표 3〉 한국문학회 회원관 문학자료 소장현황

번호	문학관명	소장자료*
1	강진시문학파기념관	- 단행본 5,000여 권 - 1920~60년대 회귀도서 500여 종 등 육필 및 유품, 저서 - 1920~50년대 문예지 창간호 30여 종
2	경남문학관	- 경남 작고 문인 105명 자료 및 저서 1,044권 - 경남 출향문인 343명의 저서 1,628권 - 경남 도내문인 499명의 저서 1,674권 - 경남 도내 동인 84개의 자료, 문학지, 동인지 890점(권) - 경남 도내 문학단체 50개의 자료, 간행물 82점(권)
3	구상문학관	- 도서 27,571권, 전시물 300여 점
4	김삿갓문학관	- 서적·생활용품 268건 368점
5	남해유배문학관	- 도서 1,500권, 토기, 민속품, 지류 등 1,349건 2,636점, 전시물 80여 점, 디지털 자료 7건, 유배객 DB(조선 시대 179건, 고려 시대 7건)
6	노작홍사용문학관	- 도서 17,378권, 노작 홍사용 선생 유물 및 사료, 지역 문학 관련 사료
7	농민문학기념관	- 국내·북한·연변·중국의 문학 자료, 서적 등 15,000건 - 농민소설가·향토적 시인의 생애 및 작품자료 - 충북 영동 지역 작가 작품 자료 - 남북한의 문학지, 동인지, 북한 작가 작품 자료 - 작가 이동희의 문학과 삶을 일람할 수 있는 발표작품, 저서, 원고, 교정쇄, 창작노트, 취재답사노트, 사진, 테이프, 서간, 기타, 전기자료, 강의노트, 교재, 지도 논문
8	대구문학관	- 단행본 3,112권
9	대전문학관	- 자료 22,575건
10	동리·목월문학관	- 김동리와 박목월의 유품
11	땅끝순례문학관	- 도서 3,805권
12	만해기념관	- 수택본, 님의 침묵 시집의 160여종의 판본 - 전적류, 유묵, 지류, 족자, 탁본, 병풍 등 근현대 자료 1,209건 3,086점, 논문 700여 편
13	목포문학관	- 단행본 6,653권, 고서, 문집 등 7,089건 7,089점 - 학술자료
14	박두진문학관	- 해, 한국현대시론 등 도서, 문장 등 연속간행물 - 박두진 출연 TV 프로그램 필름, 노래 카세트테이프, 도자기 등
15	박인환문학관	- 서지 등 70건 70점
16	만해문학박물관	- 도서, 패널, 문서, 동상 등 4건 692점
17	백호문학관	- 지류, 민속품 등 237건 237점
18	삼성출판박물관	- 전적, 근현대도서, 출판인쇄도구 등 100,000건 100,000점
19	석정문학관	- 근현대도서 1,057권, 교과서 401권 - 국보·보물 8점, 전적 35점, 출판인쇄도구 60점, 기타 66점
20	세계여성문학관	- 여성문학 단행본 4만 2천여 권, 1만여 권의 고서 - 1945년 이후 발간된 국내 잡지의 창간호 2,000여 종
21	순천문학관	- 도서 약 400권
22	신동엽문학관	- 육필원고 737권, 편지·생애자료 306점, 신문·잡지기사 530점, 사진 427점, 유품 114점
23	오영수문학관	- 유품 55점
24	요산문학관	- 도서 3,220권
25	잔야문학박물관	- 문학서, 육필원고, 역사서, 고서적, 테라코타 1,690건 1,690점
26	전북문학관	- 도서 1천여 권

번호	문학관명	소장자료*
27	제주문학의집	- 국내외 문학서적 3천여 권
28	조병화문학관	- 53권의 창작시집, 수필집, 화집 등 160여 권의 서적 - 서적, 육필원고 외 3,106건 4,035점
29	지훈문학관	- 지훈 육필원고집, 부채, 여권, 가족장갑, 모자, 넥타이, 모시두루마기, 삼베바지, 초상화, 사방탁자, 문갑, 제1회 지훈상 수상식 초대장, 제2회 지훈상 수상식 초대장, 고 지훈 조동탁 선생 20주기 추모학술대회 초대장, 조지훈 선생 비문제막식 초대장, 지훈시비 제막식 초대장, 1982년도 문화의 날 기념식 팸플릿, 1996 문학의 해 문인 모습 및 작고 문인 육필 전시회 팸플릿, 금관문화훈장, 편지 2통3장, 신라국호연구논고, 신문스크랩, 릴 테이프, 육성녹음 테이프, 시낭송 테이프 등
30	청마문학관	- 각종문헌자료 350여 점 유품 100여 점
31	최명희문학관	- 최명희 작품 수록 도서 40여 권, 친필 사인책, 최명희 관련 도서 50여 권 - 혼불문학제 자료집 10권, 연구논문 50여 권, 사진 15여 장, 친필일력서 1종, 친필편지 3종, 친필엽서 20종, 옥관문화훈장, 방패연, 문방오우(몽블랑만년필, 자, 칼, 끈, 가위), 원고지 등
32	충남문학관	- 석재, 목재 등 인장 13건 528점
33	한국근대문학관	- 대표소장자료 23건, 근대도서류 214건 214점
34	한국시집박물관	- 시집 1만여 권, 회귀시집 100여 권 - 지류 8,340건 1,403점
35	한국현대문학관	- 친필원고, 대표 시집 초판본 600여 권, 대표 소설집 초판본 500여 권, 수필집 400여 권, 번역소설 200여 권, 방각본, 딱지본 200여 점, 잡지 500여 종 - 근현대사, 지류 5,580건 13,530점 - 문학인 사진자료 500여 점, 도자기
36	한무숙문학관	- 원고류, 서적류 등 3,325건 3,346점
37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 육필원고, 사진, 족자, 훈장, 증서, 펜 등 161건 161점

* 소장자료에 대한 설명은 문학관에서 작성한 내용을 따름

‘도서 약 400권(순천문학관)’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또한, 소장 통계를 작성한 기준 시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문학관이 소장한 자료는 도서부터 작가의 육필원고, 창작노트, 취재답사노트, 편지와 옷, 모자, 탁자, 문방류와 같은 작가 유품, 작가의 음성 녹음테이프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었다.

37개 문학관 중 소장자료의 규모를 명시하지 않은 3개의 문학관을 제외하면 단행본, 연속간행물 등 도서류의 경우 0~1,000권, 1,000권~5,000권을 소장한 기관이 각각 10개관이었으며, 10,000권 이상의 자료를 소장한 기관은 6개관이었다.

육필원고, 편지, 기념물 등 비도서류의 경우 0~1,000점을 소장한 기관이 13개관, 1,000점 이상의 자료를 소장한 기관이 8개관이었다(〈표 4〉 참조).

2.3 시설 및 인력 현황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와 관련한 문학관 별 등록 기준을 살펴보면 국립문학관과 사립문학관 모두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연구실, 교육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대통령령 제27428호). 웹사이트를 통해 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40개관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추가적으로 ‘2020 전국문화기반시

〈표 4〉 한국문학관협회 회원관 문학자료 소장 규모

구분		문학관명	문학관 수
도서	0 ~ 1,000권	김삿갓문학관, 농민문학기념관, 만해기념관, 박인환문학관, 순천문학관, 잔아문학박물관, 조병화문학관, 청마문학관, 최명희문학관, 한국근대문학관	10
	1,000권~5,000권	남해유배문학관, 대구문학관, 땅끝순례문학관, 삼성출판문학관, 석정문학관, 신동엽문학관, 요산문학관, 전북문학관, 제주문학의집, 한국현대문학관	10
	5,000권 ~ 10,000권	강진시문학파기념관, 경남문학관	2
	10,000권 이상	구상문학관, 노작홍사용문학관, 농민문학기념관, 목포문학관, 세계여성문학관, 한국시집박물관	6
비도서	0 ~ 1,000점	강진시문학파기념관, 구상문학관, 김삿갓문학관, 농민문학기념관, 백호문학관, 석정문학관, 오영수문학관, 잔아문학박물관, 지훈문학관, 청마문학관, 최명희문학관, 충남문학관,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13
	1,000점 이상	남해유배문학관, 만해기념관, 삼성출판박물관, 신동엽문학관, 조병화문학관, 한국시집박물관, 한국현대문학관, 한무숙문학관	8

〈표 5〉 한국문학관협회 회원관 시설 현황

구분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도서관			교육실			문학관 수
	O	X	△	O	X	△	O	X	△	O	X	△	O	X	△	
공립	38	0	2	15	5	20	20	4	16	23	3	14	33	1	6	40
사립	16	1	0	8	2	7	9	2	6	11	2	4	9	1	7	17
계	54	1	2	23	7	27	29	6	22	34	5	18	42	2	13	57

* O: 시설 있음, X: 시설 없음, △: 확인 불가

설총람」을 확인하여 총 57개관의 시설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전시실이 있는 기관은 54개관, 수장고가 있는 기관은 23개관, 사무실이 있는 기관은 29개관, 도서관이 있는 기관은 34개관, 세미나실, 프로그램실, 교육실 등이 있는 기관은 42개관이었다(〈표 5〉 참조).

웹사이트를 통해 문학관의 인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개관만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2020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을 통해 총 23개 기관의 인력 현황을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된 문학관은 16개관이었으며 2개관은 직책만을 기재하고 있어 전문인력과 행정인력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3. 국내 문학관 웹사이트 정보 제공 현황

3.1 웹사이트 유형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88개 한국문학관협회 회원관의 웹사이트 구축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립문학관은 56개관 중 45개관, 사립문학관은 32개관 중 23개관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다. 사립에 비해 공립문학관의 웹사이트 구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 주소가 확인된 문학관 중 공립 8개관, 사립 3개관은 접속이 불가능하였다(〈표 6〉 참조).

한국문학관협회 회원관의 웹사이트 구축 형태

〈표 6〉 한국문학관협회 회원관 웹사이트 구축 현황

구분	웹사이트 구축			웹사이트 미구축	합계
	접속 가능	접속 불가	소계		
공립	45	8	53	3	56
사립	23	3	26	6	32
계	68	11	79	9	88

〈표 7〉 한국문학관협회 회원관 웹사이트 구축 유형

구분	단독형	부속형	SNS형	합계
공립	26	16	3	45
사립	16	0	7	23
계	42	16	10	68

는 하나의 문학관 웹사이트가 단독으로 운영되는 '단독형', 독립 웹사이트 없이 문학관 운영기관인 지자체나 문화재단 웹사이트의 일부 페이지를 문학관 웹사이트로 사용하는 '부속형', 블로그, 카페 등 SNS를 웹사이트로 사용하는 'SNS형'의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공립문학관의 웹사이트 구축 형태는 단독형 26개관, 부속형 16개관, SNS형 3개관으로, 단독형 웹사이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사립문학관 중 단독형 16개관, SNS형 7개관으로 SNS를 웹사이트로 사용하는 문학관이 공립문학관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속형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문학관은 없었다(〈표 7〉 참조).

3.2 문학 정보

웹사이트의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안내는 공립 10개관에서만 제공하고 있었다. 대전문학관은 기증·기탁 방법을 안내하며, '1960년 이전 국어국문학 자료', '한국 주요 문학잡지 창간호', '대전 대표문인 관련 자료', '대전의 동인지

및 문예지 창간호' 등 귀중자료 선별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료 기증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하고, 기증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소장자료 분류 기준은 공립 12개관, 사립 4개관이 제공하고 있었다. 분류 기준으로는 문학 장르, 자료 유형, 시대 구분 등이 있었으며, 자료 유형이 분류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동리·목월 문학관과 목포문학관은 문인을 구분한 뒤 자료 유형에 따라 소장자료를 분류하였다(〈표 8〉 참조).

조사 대상 문학관의 웹사이트에서 소장자료의 목록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공립 17개관, 사립 4개관이었다. 목록정보의 제공 없이 단순히 소장자료의 리스트만을 나열한 기관은 11개였다. 강진시문학과기념관, 땅끝순례문학관, 만해기념관은 자료 유형에 따라 기술요소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었다. 대전문학관은 서지정보, 형태정보, 소장정보, 관리정보로 기술요소를 구분한 뒤 하위 요소를 설정하여 기술요소가 구조화되어 있었다. 경남문학관, 요산문학관, 한국시

〈표 8〉 한국문학관협회 회원관 웹사이트 소장자료 분류 기준

구분	분류 기준
강진시문학파기념관	자료 유형
경남문학관	문학 장르
구상문학관	시대
농민문학기념관	자료 유형
독서왕김득신문학관	국적, 출토지, 분류, 재질, 지정문화재
대전문학관	자료 유형
동리·목월문학관	문인-자료 유형
땅끝순례문학관	자료 유형
만해기념관	자료 유형
목포문학관	문인-자료 유형
삼성출판박물관	자료 유형
영인문학관	자료 유형
요산문학관	자료 유형
이효석문학관	자료 유형
지훈문학관	자료 유형
한국가사문학관	자료 유형

집박물관, 한국현대문학관 등은 도서 자료 기술에 적합한 요소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저자를 기술하기 위한 요소명은 저자, 저자명, 작가, 작가명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자료명 역시 도서명, 작품명, 자료명, 명칭, 제목 등으로 동일한 요소를 기술하기 위한 요소명이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다. 문학관 소장자료의 기술 요소는 다음 〈표 9〉와 같다.

소장자료의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공립 13개관, 사립 4개관이었다.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기관 중 자료의 표지, 유품의 사진 등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기관도 일부 있었으나, 전체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한무숙문학관의 경우 작품 연보 메뉴에서 작품별 원문을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가사문학관은 한국가사문학 데이터베이스

로 원문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가사, 고문서·전적 등은 원문과 함께 현대문과 초록을 제공하였다. 목판, 유물, 그림·고지도 등의 박물관은 사진과 유물해설을 제공하고, 사진의 배율 조정 기능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관동별곡, 사미인곡 등 담양을 배경으로 한 가사의 원문과 함께 현대문을 한 페이지에 표기하는 대역(對譯) 전자책을 제공하고 있었다(〈표 10〉 참조).

문학 작품에 대한 학위논문, 학술논문 등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 문학 관련 연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문학 관련 연구 정보는 공립 14개관, 사립 1개관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땅끝순례문학관은 학술논문 메뉴에서 문학 관련 논문 목록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목포문학관은 국회도서관, KISS 등 외부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학술자료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표 9〉 한국문학관협회 회원관 웹사이트 소장자료 기술요소

구분	기술요소
강진시문학파기념관	도서: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분류, 관리번호 유물: 저자, 유물번호, 발행년도, 분류, 관리번호
경남문학관	등록번호, 종류, 저자, 출판사, 발행일자, 기증자, 등록일자, 비교, 도서명
구상문학관	저자, 별칭기호, 청구기호, 출판사, 발행년도, 소장위치
김유정문학촌	작품명, 탈고일, 발표지, 발표일, 장르
대구문학관	소장자료명, 저자명, 발행년도, 발행처, 책소개, 원문보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표지, 명칭, 국적/시대, 분류, 재질, 소장품번호, 다운로드, 정보공유
대전문학관	서지정보: 제목(서명), 권호, 저자, 발행처, 발행일, 유형, 종류 특이내용 형태정보: 표지, 페이지, 책수, 상태, 첨부이미지 소장정보: 소장경로, 기증자 관리정보: 별칭기호, 도서번호, 분류번호, 전시위치, 부차번호
땅끝순례문학관	소장자료: 자료명, 크기, 구조, 분류, 시대 도서정보: 등록번호, 제목, 저자, 출판사, 년도 학술논문: 등록번호, 저자, 발행연도, 제목, 수록지명, 비교
만해기념관	저서 및 논저: 저자, 제목, 수록지명, 발행일 석박사학위논문: 저자, 제목, 학위수여대학, 발행년도
삼성출판박물관	표제, 판본, 시대, 보물번호, 해제
석성문학관	물품번호, 명칭, 입수연유, 수량, 입수처, 국적/시대, 가격, 재질, 크기, 입수일자, 특징, 물품설명
영인문학관	제목, 저자, 년도, 크기, 대표작, 기증인 등
오영수문학관	유품명, 수량
요산문학관	저서명, 저자명, 출판사
이효석문학관	자료명, 저자명, 자료 형식, 출판사, 출판년월일, 자료 위치, 자료 개수, 자료 설명, 자료 이미지, 자료 등록일
지훈문학관	연번, 소장품목, 제목, 규격, 수량, 기부자, 기부일자, 기부자연락처, 비교
한국가사문학관	UCI, 한글명, 분류코드, 작자, 제작시기, 규격, 자료형태, 현소장처, 취득일, 전소장자
한국근대문학관	표제, 작가명, 발행일시, 발행처, 내용
한국시집박물관	번호,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한국현대문학관	표제, 표지, 작가, 출판년도, 출판사, 구분, 작가소개, 작품소개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작가, 출판사, 출판연도, 분량, 내용, 썸네일

〈표 10〉 한국문학관협회 회원관 웹사이트 문학 정보 제공 현황

구분	기관 수	수집		분류		목록		원문제공		
		제공	미제공	제공	미제공	제공	미제공	제공	미제공	
공립	단독	26	7	19	8	18	13	13	10	16
	부속	16	3	13	4	12	4	12	2	14
	SNS	3	0	3	0	3	0	3	1	2
	계	45	10	35	12	33	17	29	13	32
사립	단독	16	0	16	4	12	4	12	2	14
	SNS	7	0	7	0	7	0	7	2	5
	계	23	0	23	4	19	4	19	4	19

문학 정보원은 문학 자료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콘텐츠, 관련 웹사이트 등의 정보원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문학 정보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조사 결과, 공립 9개관, 사립 3개관에서 문학 정보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대구문학관은 ‘오래 전, 오늘의 문학’이라는 제목으로 문학도서 발간과 같은 문학기계 이슈를 날짜별로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이용자가 특정 날짜의 문학 관련 이슈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시집박물관은 한국의 시인, 한국의 시집, 한국 시단의 흐름, 한국의 시 잡지 등 한국 시집 관련 정보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제공하였다(〈표 11〉 참조).

3.3 문인 정보

작가의 생애와 작품세계에 대해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작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조사 결과, 공립 32개관, 사립 8개관에서 작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기형도문학관에서는 ‘생애’를 제목으로 기형도 시인의 유년시절부터 작품세계까지 정리하여 제공하였으며, 김달진문학관은 ‘생애와 詩’ 메뉴

에서 김달진 시인의 생애와 함께 김달진문학상 제정, 시비 건립 등 타계 이후 작가와 관련된 주요 활동을 정리하여 제공하였다. 작가 연보는 공립 24개관, 사립 6개관에서 제공하고 있었으며, 작품 연보는 공립 15개관, 사립 3개관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문인에 대한 학위논문, 학술논문 등 문인 관련 연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문학관은 공립 11개관, 사립 3개관이었다. 기형도문학관은 ‘참고자료’ 메뉴에서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RISS에 게재된 논문 중 기형도 시인 관련 학위논문, 발표 논문을 링크와 함께 제공하고 있었다. 한무숙문학관은 문인 관련 학술저널, 학위논문의 목록을 제공하며 일부 자료의 경우 초록을 함께 제공하고 있었다.

문인 정보원은 문인의 작품세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콘텐츠, 관련 웹사이트 등의 정보원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문인 정보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조사 결과, 문인 정보원은 공립 7개관, 사립 4개관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정지용문학관은 문인의 생애를 만화로 재구성하여 제공하였으며, 한무숙문학관에서는 문인의 생애와 문학 세계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였다(〈표 12〉 참조).

〈표 11〉 한국문학관협회 회원관 웹사이트 문학 관련 자료 제공 현황

구분	기관 수	문학 관련 연구 정보		문학 정보원		
		제공	미제공	제공	미제공	
공립	단독	26	11	15	8	18
	부속	16	3	13	1	15
	SNS	3	0	3	0	3
	계	45	14	30	9	37
사립	단독	16	1	15	2	14
	SNS	7	0	7	1	6
	계	23	1	22	3	20

〈표 12〉 한국문학관협회 회원관 웹사이트 문인 정보 제공 현황

구분	기관 수	작가 정보		작가 연보		작품 연보		문인 관련 연구 정보		문인 정보원		
		제공	미제공	제공	미제공	제공	미제공	제공	미제공	제공	미제공	
공립	단독	26	22	4	17	9	11	15	10	16	6	20
	부속	16	10	6	7	9	4	12	1	15	1	15
	SNS	3	0	3	0	3	0	3	0	3	0	3
	계	45	32	13	24	21	15	30	11	34	7	38
사립	단독	16	8	8	6	10	3	13	3	13	4	12
	SNS	7	0	7	0	7	0	7	0	7	0	7
	계	23	8	15	6	17	3	20	3	20	4	19

4. 국내 문학관의 웹사이트 정보 제공 개선 방안

4.1 웹사이트 구축 지원

국내 문학관의 웹사이트 구축 현황을 조사한 결과, 웹사이트 구축률은 공립 95%, 사립 8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웹사이트 유형은 공·사립문학관 모두 하나의 문학관이 독립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단독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홈페이지 유형별 문학 정보, 문인 정보의 제공을 비교하였을 때, 카페나 블로그와 같은 SNS형 웹사이트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정보가 더 많았다. 이는 문학관의 SNS형 웹사이트가 정보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SNS형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문학관 중 진주한국시조문학관은 2019년 10월, 김동명문학관은 2019년 11월, 설화문학관은 2020년 10월 이후 웹사이트가 갱신되지 않고 있었으며, 청류재수목문학관의 경우 웹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게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 문학관의 SNS형 웹사이트는 최신성과 접근성 역시 부족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SNS형 웹

사이트 운영 시 문학관의 공용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김동명문학관의 경우 개인 계정으로 운영되던 웹사이트의 관리자 변경이 진행되지 않아 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SNS형 웹사이트가 지속적으로 관리되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많은 국내 문학관은 예산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사업비로 지출되고 있다(이명호, 오삼균, 도슬기, 2015; 한국문학번역원, 2018). 이러한 상황에서 한정된 문학관 예산만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웹사이트 구축을 위해서는 웹서비스의 목적과 대상, 콘텐츠, 인터페이스, 접근성, 호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문학관의 기본 운영을 위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채근병, 2019) 자체적으로 웹사이트 구축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갱신하며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문학관의 웹사이트 구축 예산 지원이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나아가 국립한글박물관과 한국문학관협회는 웹사이트 구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실무자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4.2 문학 정보의 체계적 정리

국내 문학관 중 웹사이트에서 소장자료의 분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국립 12개관, 사립 4개관이다. 문학관의 소장자료 분류 기준으로는 자료 유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기관에서 한 가지 기준만 사용하여 자료를 분류하고 있었다. 단일 기준으로 자료를 분류할 경우 집중된 브라우징이 가능하나 이용자에게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찰스 디킨스 기념관(Charles Dickens Museum)³⁾은 웹사이트의 '탐색(Explore)' 메뉴에서 현관(Hallway), 화실(Drawing Room) 등 찰스 디킨스 기념관의 공간·시설별로 소장자료를 브라우징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디킨스와 크리스마스(Dickens and Christmas), 디킨스의 삶(Dickens's Life), 디킨스의 글(Dickens's Writing) 등 '테마(Themes)', 물품(Objects), 오디오(Audio), 영상(Films) 등 '자료 유형(Type)'을 추가적인 접근점으로 제시하였다. 영국 셰익스피어 생가 재단(Shakespeare birthplace trust)⁴⁾의 경우 소장자료는 'Collections'로 표기하고 있으며, 책상, 시계 등 문인 유품은 'Museum', 서신, 사진 등은 'Archive', 도서는 'Library'로 분류하였다. 또한 목재(wood), 금속(metal), 유리(glass) 등 키워드 링킹을 통해 동일한 키워드를 가진 자료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문학관 중 독서왕김득신문학관에서는 국

적, 출토지, 분류, 재질, 지정문화재를 기준으로 소장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드롭다운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다른 소장자료로의 연결 및 이동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국내 문학관 역시 다양한 분류 기준을 사용하여 소장자료의 접근점을 확대하고, 링킹서비스를 통해 확장된 탐색을 지원하여야 한다.

소장자료에 대한 목록정보는 국립 17개관, 사립 4개관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목록정보가 개별 문학관마다 다르게 기술되고 있었으며, 동일한 성격의 요소를 기술하기 위한 요소명 역시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있었다. 조사 대상 문학관 중 한국근대문학관과 대전문학관에서 소장 중인 근대 잡지 『소년(少年)』의 목록정보를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종합목록⁵⁾ 아단문고⁶⁾와 비교하였을 때, 한국근대문학관과 대전문학관의 목록정보가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제공되고 있음이 나타났다(〈표 13〉 참조). 아단문고에서 가장 많은 기술요소를 사용하여 문학 자료를 기술하고 있었으며, 특히 잡지의 발행, 인쇄, 발매, 등출판에 대한 기술요소를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근대종합목록은 잡지에 수록된 기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사명, 저자, 수록면으로 요소를 나누어 기술하였다. 대전문학관은 서지정보, 형태정보, 소장정보, 관리정보로 기술요소를 구분하고 하위요소를 기술하여 한국근대문학관에 비해 기술요소가 구조적이었다. 한국근대문학관은 비교대상 중 기술요소의 수가 가장 적었다.

3) <https://dickensmuseum.com>

4) <https://www.shakespeare.org.uk>

5) <https://www.nl.go.kr/NL/contents/N10901000000.do>

6) <http://www.adanmungo.org>

〈표 13〉 국내 문학관 소장 잡지 『소년』 기술요소 비교

한국근대문학관	대전문학관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종합목록	아단문고
표제 작가명 발행일시 발행처 내용 표지	서지정보 - 제목(서명) - 권호 - 저자 - 발행처 - 발행일 - 유형 - 종류 - 특이내용 형태정보 - 표지 - 페이지 - 책수 - 상태 - 첨부이미지 소장정보 - 소장경로 - 기증자 관리정보 - 별칭기호 - 도서번호 - 분류번호 - 전시위치 - 부차1번호 - 부차2번호	제목 발행사항 해제정보 소장정보 - 번호 - 권호 - 부차적권호 - 발행년월 - 소장기관 기사 - 기사명 - 저자 - 수록면	잡지 - 구분 - 제호(잡지명) - 한글 - 한문 - 발행자 - 인쇄인 - 편집 겸 발행인 - 출판사 - 발행지 - 인쇄소 - 인쇄지 - 발매소 - 발매지 - 창간일 - 간행일 - 인쇄일 - 권호 - 간별 - 형태 - 가격 표지화 삽화, 컷 해제 원본

문학관이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소장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 간의 특성이나 맥락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이은영, 2019). 또한, 소장자료 데이터 간 호환에 한계가 있어,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 역시 낮아질 수 있다. 2020년 한국문학관협회는 「지역문학관 소장 유물 체계화 사업」을 시작하며 문학관 유물 DB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한국문학관협회, 2021). 국내 문학관은 소장자료의 목록 정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문학관협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통일된 목록체계를 사용하고

양질의 소장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며, 문학관 인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3 원문 서비스 활성화

문학 자료의 원문 서비스를 통해 문학 분야의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문학관 공립 45개관 중 13개관, 사립 23개관 중 4개관에서만 소장자료의 원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문학 자료는 저작권에 따라 전문을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

을 수 있으나 한국가사문학관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원문을 구축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디지털화한 자료의 이미지와 원문, 현대문의 텍스트를 함께 제공하였다. 마크 트웨인 저택 & 박물관(Mark Twain House & Museum)⁷⁾의 경우, 방문 및 예약을 통해 소장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웹사이트에서 마크 트웨인의 작품 및 작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원을 링크로 제공하고 있다. 그중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의 마크 트웨인 프로젝트(Mark Twain Project) 웹사이트⁸⁾는 마크 트웨인의 작품과 논문에 대한 아카이브이다. 마크 트웨인 프로젝트에서는 서신, 저서 등의 원문 텍스트에 XML을 적용하여 주석과 해제를 연결하고 있으며, 이는 참고할 만한 문학 원문 서비스이다.

4.4 문학·문인 관련 정보의 제공

국내 문학관은 문학 관련 연구 및 문학 정보원 제공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작가 정보, 작가 연보에 비해 작품 연보, 문인 관련 연구 정보, 문인 정보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학 자료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이 만들어진 배경, 창작 당시 작가의 메모 등 작품을 둘러싼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은영, 2019). 따라서 작품 자체 뿐 아니라 작가의 생애 및 작품세계, 동시기에 발표한 작품, 문학 자료, 문인 관련 연구 등과 같은 정보 역시 문학관에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크

트웨인 저택 & 박물관은 '소장자료 & 연구(Collections & Research)' 메뉴에서 소장자료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참고 정보원(Additional Research Resources)'에서는 마크 트웨인의 저택, 마크 트웨인, 기타 웹 정보원 등 세 가지를 추가적인 참고 정보원으로 제공하는데, 이는 문학관 웹사이트가 문학 작품 및 문인의 작품 세계 연구를 위한 정보원으로 기능하는 사례이다. 국내 문학관 역시 문학관 운영 주제에 맞는 참고 정보원, 연구 동향 등을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학 및 문인 정보를 폭넓게 제공해야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국내 문학관 웹사이트의 정보 제공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에 2021년 4월 기준 한국문학관협회 88개 회원관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국내 문학관의 웹사이트 구축률은 약 9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웹사이트 유형으로는 문학관에 대한 독립적인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단독형 웹사이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블로그, 카페 등을 웹사이트로 사용하는 SNS형 웹사이트도 10개관이었다.

국내 문학관의 문학 정보 제공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장자료의 분류 기준은 공립 12개관, 사립 4개관에서 제공되고 있었으며 개별 문학

7) <https://marktwainhouse.org>

8) <https://www.marktwainproject.org>

관마다 다양한 분류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목록정보는 공립 17개관, 사립 4개관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11개 문학관에서는 세부 목록 정보 없이 단순히 소장자료 리스트만을 제공하고 있었다. 소장자료에 대한 목록정보 역시 개별 문학관마다 다르게 기술되고 있었으며, 경남문학관, 요산문학관 등 일부 문학관의 기술 요소는 도서 자료 기술 규칙을 적용하고 있었다. 소장자료의 원문은 공립 13개관, 사립 4개관에서만 제공되고 있어, 국내 문학관의 원문 서비스는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학 관련 연구 정보는 공립 14개관, 사립 1개관, 문학 정보원은 공립 9개관, 사립 3개관에서 제공되고 있어 문학 관련 자료 제공 역시 활성화되지 않고 있었다.

문인 정보 중 작가 정보는 공립 32개관, 사립 8개관에서 제공하고 있었으며, 작가 연보는 공립 24개관, 사립 6개관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작품연보는 공립 15개관, 사립 3개관에서 제공하고 있었으며, 학위논문, 학술논문 등 문인 관련 연구 정보는 공립 11개관, 사립 3개관에서 제공되고 있었다. 문인 정보원은 공립 7개관, 사립 4개관에서 제공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사립문학관의 문인 정보 제공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특히 SNS형 웹사이트에서는 정보 제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국내 문학관 정보 제공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SNS형 웹사이트는 단독형, 부속형 웹

사이트에 비해 제공하는 정보의 수가 적었으며, 최신성이 부족하였다. SNS형 웹사이트는 정보 제공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국내 문학관은 단독형 또는 부속형 웹사이트로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적 차원에서 문학관의 웹사이트 구축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 직·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문학관의 분류 기준은 단순하게 설정되어 있어 이용자에게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할 수 없었다. 목록정보도 기술요소와 기술수준이 통일되지 않았으며 동일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타 기관에 비해 간략하게 제공되고 있었다. 국내 문학관은 이용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소장자료를 브라우징 할 수 있도록 접근점을 확대하고 통일된 기술형식을 사용하여 체계적인 목록정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장자료의 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전체 조사 대상의 25%로, 국내 문학관의 원문 서비스는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학 자료의 경우, 저작권의 한계가 있으나 문학 정보의 활용을 도모하여 문학 정보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원문 서비스 도입이 논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문학관은 문학 작품 및 문인의 작품세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보원 제공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었다. 국내 문학관은 참고 정보원, 연구 동향 등을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학 및 문인 정보를 폭넓게 제공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민영 (2019). 한국 문학 아카이브의 현황과 전망: 근대문학정보센터와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4), 211-219.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4.211>
- 김현지, 이해영 (2009). 웹 기록정보서비스 평가모형 개발과 서비스 평가: 대학기록관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2), 59-78. <https://doi.org/10.14404/JKSARM.2009.9.2.059>
- 노동조, 이기리 (2019). 박물관 웹 사이트의 메뉴구조 및 콘텐츠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4), 5-27. <https://doi.org/10.14699/kbiblia.2019.30.4.005>
- 노동조, 이승욱 (2020). 미술관 웹 사이트의 구조 및 콘텐츠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1), 277-301. <https://doi.org/10.4275/KSLIS.2020.54.1.277>
- 노영희, 강정아, 정대근 (2016).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3(4), 27-57. <http://dx.doi.org/10.3743/KOSIM.2016.33.4.027>
- 문학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28호.
- 문학진흥법. 법률 제18151호.
-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0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박옥남 (2019). 문화유산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1), 195-224.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1.195>
- 오창은 (2016). 국립한국문학관의 콘텐츠 구성과 활용 방안 연구. 어문론집, 67, 179-203.
<https://doi.org/10.15565/jll.2016.9.67.179>
- 이명호, 오삼균, 도솔기 (2015). 라키비움(Larchiveum) 관점에서 본 국내 문학관의 운영실태와 과제: 국내 문학관의 기능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139-159.
<https://doi.org/10.16981/kliss.46.4.201512.139>
- 이은영 (2019). 국가문화유산으로서 문학기록의 조직화 방안. 기록학연구, 61, 31-69.
<https://doi.org/10.20923/kjas.2019.61.031>
- 이정아 (2014). 문학관의 고유가치 증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 연구: 유형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 정서지 (2017). 문학관과 문학기록의 현황 및 활용방안.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기록학과.
- 정정훈 (2010). 지역 문학관 활성화 방안: 문학 연구 인력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24, 63-85.
<https://doi.org/10.16937/jcp..24.201008.62>
- 채근병 (2019). 문학관 협력망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문학관 협력망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18(1), 191-223.

- 초위 (2012). 심종문(沈從文) 사이버문학관 개발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 한국문학번역원 (2018). 2018년 문학실태조사 연구보고서(11-B552132-000001-01).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e, K. B. (2019). A study about plan of building and operating literature museum cooperation network: a focus on literature museum cooperation network support center. *The Journal of Literary Creative Writing*, 18(1), 191-223.
- Enforcement Decree of the Literature Promotion Act. No. 27428.
- Jeong, J. (2010). A study for the developing plan of a literary center: a case study on a literary curator.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24, 63-85.
<https://doi.org/10.16937/jcp..24.201008.62>
- Jeong, S. J. (2017). Current Status and Application of Literature houses and Literary Records.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 Kim, H. J. & Rieh, H. Y. (2009). Evaluation model development for web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and the service evaluation: focused on university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9(2), 59-78.
<https://doi.org/10.14404/JKSARM.2009.9.2.059>
- Kim, M. (2019). Status and prospects of the korean literature archive: focus on information center of Korean modern literature and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n literatur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9(4), 211-219.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4.211>
- Lee, E. Y. (2019). A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literary archives as national cultural heritage.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61, 31-69.
<https://doi.org/10.20923/kjas.2019.61.031>
- Lee, J. A. (2014). A Study on the Activation for Literature Museum with the Specific Value: Focused on the Typical Program Management. Master's thesis,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Korea.
- Literature Promotion Act. No. 18151.
-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2018). 2018 Literature Status Survey (11-B552132-000001-01).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0). The Conspectus on National Facilities of Culture.
- Noh, D. J. & Lee, G. R. (2019). A study on the analysis of menu structure and contents in museum web sit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0(4), 5-27. <https://doi.org/10.14699/kbiblia.2019.30.4.005>
- Noh, D. J. & Lee, S. W. (2020). A study on the structure and content analysis of art museum websit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1), 277-301. <https://doi.org/10.4275/KSLIS.2020.54.1.277>
- Noh, Y., Kang, J. A., & Jeong, D. K. (2016). A study on strategies to promote the use of the subject guide service for Korean modern literatu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4), 27-57. <http://dx.doi.org/10.3743/KOSIM.2016.33.4.027>
- Oh, C. E. (2016). A study on the national Korean literature center and the composition and utilization of literary contents. *The Journal of Language & Literature*, 67, 179-203. <https://doi.org/10.15565/jll.2016.9.67.179>
- Park, O. N. (2019). A study on the online service of cultural heritage cont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9(1), 195-224.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1.195>
- Wei, X. (201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henCongWen Cyber Literature Museum. Master's thesis,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 Yi, M., Oh, S. G., & Do, S. (2015). A study on the status of Korean literature house: larchiveum perspectiv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4), 139-159. <https://doi.org/10.16981/kliss.46.4.201512.139>